

보도시점 : 2024. 12. 23.(월) 11:00 이후(12. 24.(화) 조간) / 배포 : 2024. 12. 23.(월)

# 문화선도 산업단지 선정·집중 지원 통해 성공모델 창출한다

- 정부 합동으로 '25년 문화선도산단 공모 착수, 범부처 사업 패키지 지원 예정
- 산업단지별 특성·여건을 반영한 브랜드 구축 및 문화융합계획 마련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25년 '문화선도 산업단지'(3개소)를 선정하기 위한 통합공모를 2024년 12월 23일(월)부터 2025년 2월 20일(목)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공모는 범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24.9)의 후속 조치이다.

□ 문화선도 산업단지 공모는 준공·운영 중인 전체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며, 광역지자체(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가 기초지자체 등과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하여 산업단지별 특성, 입지여건, 근로자 구성 등을 반영한 문화선도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전담 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에 신청\*하면 된다.

\* 1개 시·도 당 최대 2개 이내의 산업단지 신청 가능.

○ 신청 이후에는 각 부처가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면 평가, 현장실사, 발표심사를 거쳐 3곳을 선정할 계획이며, 산단공, 지역 문화진흥원, 국토연구원 등 유관기관에서 컨설팅을 제공하여 세부 사업 계획을 보완하고 내년 4월에 협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공모 추진 주요 일정(안)>

공모 알림	접수	현장실사	선정 평가	컨설팅 및 협약체결	사업비 교부 및 사업추진
부처 합동 → 지자체 등	지자체 등 → 전담기관 (산단공)	민간 평가위원회 (부처간TF)	민간 평가위원회 (부처간TF)	전담기관 → 수행기관	전담기관 → 수행기관
'24.12.23	~'25.2.20	'25.3월	'25.3월	'25.4월	'25.4월말~

- 문화선도 산업단지에는 △ 산업단지 통합브랜드 개발, △ 산업단지 상징물(랜드마크) 조성, △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산업부), △ 산업단지 재생사업(국토부), △ 산업단지 특화 문화 프로그램 운영(문체부) 등 관계부처 사업들이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되며, 문화·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토지용도 변경, 용적률 완화 등의 특례 적용도 검토된다.

**< 선도산단 패키지 지원사업(안) >**

소관부처	사업명	주요 내용
산업부	문화를 담은 브랜드산단 조성(문화브랜딩)	청년디자인리빙랩 운영 산업단지 브랜드 개발
	문화를 담은 브랜드산단 조성(랜드마크)	산업단지 랜드마크 조성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노후공장 내·외관 개선
	아름다운 거리 플러스 조성	주요 가로 경관 개선
	청년문화센터 건립	청년 친화형 복합문화공간 구축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후 임대
	산단 환경개선펀드	정부 펀드를 마중물로 민간투자 유치
문체부	문화가 있는 날(구석구석 문화배달)	산단 특화 문화 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지역 특성에 맞는 콘텐츠 활용 연계사업
	산단 청년공예 오픈스튜디오 조성	청년 공예가의 창·제작 공간 조성 지원
국토부	부처연계형 노후산단개발	산단 기반시설 등 재개발
	노후산단 재생지원(융자)	민간시행 복합개발 리모델링 융자 지원

- 특히, 선도산업단지에는 주력업종 등 고유의 정체성, 역사성, 문화를 반영한 통합브랜드(명칭·로고·색채·디자인·스토리 등)를 구축하고, 산업단지를 상징하는 랜드마크(상징물)와 테마공간 및 필요한 기반시설이 조성된다.
- 아울러, 공연, 전시 등 산업단지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산단 근로자와 지역주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선도산업단지 내 근로자, 가족, 대학생, 지역주민 등의 정책 수요자가 참여하여 문화·생활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청년 실험실(리빙랩) 운영도 지원될 예정이다.

- 문화선도 산업단지에 대한 신청기간, 지원조건, 사업별 상세 공고내용 등은 통합 공모지침에서 확인해야 하며, 이는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산업단지가 지역 내 청년이 선호하는 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 내 문화시설과 여가·휴식 공간 확충을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 “범부처 사업을 연계하여 산업단지가 문화로 재활성화되는 성공모델이 창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산업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산업단지는 그간 우리 제조업의 발전을 이끌어온 산업의 핵심 공간이나, 문화편의시설 부족, 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청년이 기피하고 입주기업은 인력난에 직면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 “앞으로 산업단지별로 청년, 근로자 시각에서 꼭 필요한 문화·여가·편의 시설, 문화 프로그램 등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산업단지를 청년이 찾는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문체부 이정우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지역 청년이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 산단 특화 문화프로그램, 문화를 접목한 공간 개선을 비롯한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집중 지원하겠다”라며,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산단 근로자 및 입주 기업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관계 부처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하여 민관협업을 통한 문화융합 성공모델로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산업입지정책과	책임자	과장	김민태 (044-201-3674)
		담당자	사무관	오지민 (044-201-3663)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	책임자	과장	이재석 (044-203-4430)
		담당자	사무관	장재원 (044-203-4407)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 지역문화정책과	책임자	과장	이선영 (044-203-2611)
		담당자	사무관	권재오 (044-203-2631)

